

여성 상대 폭력사건 끝까지 수사한다

경찰, 종결된 폭력·스토킹 등 570건 특별 점검 25건 법적 조치... "처벌 원치 않아도 개입할 것"

제주경찰이 종결됐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여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있다.

1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여성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대상 범죄 및 종결됐더라도 신변 보호가 진행 중인 사건 570건에 대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주의-

위험-위험으로 이뤄진 여성폭력 위험성 단계를 재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결과 구속영장 청구 3건, 현행범 체포 1건, 스토킹 잠정조치(유치장 유치 등) 4건, 가정폭력 임시조치(분리 등) 2건, 피해자 신변 보호 등록·연장 8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또 위험성이 사라진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조-

치를 해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40대)씨는 지난달 21일 전에 살던 제주시 소재 주택의 임대인(4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벌이다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잠정조치 1~3호(서면경고, 주거지 및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제주시 삼도동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B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고, C씨의 경우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 자행,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했음에도 경찰이 직권으로 입-

시조치 1~3호(퇴거, 주거지 및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를 신청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여부, 위험성 판단 등 기존보다 강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주청은 분기별, 각 서는 월별로 여성폭력 사건 전수점검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올해부터 여성폭력 위험성 단계별, 사건 발생 시 위험 정도에 따라 직접 개입·판단하는 '민감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코로나 나흘만에 한 자릿수 확진

11일 오후 5시 기준 5명... 오미크론 감염 없어

제주지역에서 지난 7일 이후 4일 만에 한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5시 까지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4851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선 1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3명,

해외 입국자 1명, 타지역 관련 1명 등이다. 이날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도 나타나지 않아 도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2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도민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83.1%이며 3차 접종률은 39.7%다. 강다혜기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노조, 사실과 다른 주장" 모어린이집 기자회견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관련해 어린이집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교사가 소속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의 주장을 반박했다.

어린이집 측 김용호 노무사와 원장, 학부모 운영위원장 등은 11일 제주시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 조사와 별도로 어린이집 측과 피해 교사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었지만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측에서는 어린이집 측의 대화 요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노조 측의 3번의 기자회견과 계속되는 시위로 갈등의 골을 점점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측은 "지금처럼 노조 측에서 대화도 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 피해 교사를 위한 진정한 사과와 당사자의 감정 회복 역시 멀어진다"며 "노조 측에서 어린이집 측이 고의로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령의 대표를 대신해 대리인인 노무사가 노동청의 조사를 받았고 원장과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 모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도영기자



오는 3월과 6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와 관련해 11일 제주경찰청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열었다. 강희만기자

제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금품수수 등 단속... "24시간 즉시 대응"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제주경찰청은 11일 제주청 수사과 건물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으로 제주경찰은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1일까지 145일 간 24시간 즉시 대응체제를 운영한다. 이 때까지 투입되는 경찰관은 55명(제주청 23명·동부서 12명·서부서 10명·서귀포서 10명)으로, 지난 19대 대선 당시 인원(40명)보다 15명이나 많은 숫자다.

제주경찰은 ▷금품수수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대선 때보다 투입 인원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제주서 적발된 선거 불법행위는 ▷대통령 선거 41건(17대 19건·18대 9건·19대 13건) ▷지방 선거 138건(5회 38건·6회 45건·7회 55건) ▷국회의원 선거 52건(19대 6건·20대 32건·21대 14건)이다. 송은범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에 1억 20대 여성 벌금 800만원

불법 스포츠 도박에 1억원 넘는 돈을 쓴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일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3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이듬해 4월 8일까지 총 153회에 걸쳐 1억1504만원 상당의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만 16세 학생 정당 가입 가능"

정당법 개정안 국회 의결 이석문 교육감 환영 입장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누구나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진전, 시대 변화에 맞춘 당연한 사회적 합의"라며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치적 결사체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법안 통과에 맞춰 '학생관'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을 '삶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바라보고 존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법안 적용 과정에서 문화의 충돌이 최소화 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법안의 의미가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꽃피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교 3학년인 만 18세의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오은지기자

빌라 보일러실 화재

제주시 한 빌라 보일러실에서 배관 누유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11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37분쯤 제주시 용담2동의 한 빌라에서 보일러 배관 누유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분 만에 모두 진화됐다.

>> 사진

불은 빌라 거주자가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보일러실을 확인한 결과 연기와 불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날 화재는 소방당국 현장 확인 결과 보일러 내부와 주



유 배관 주변에서 탄화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주유 배관에서 기름이 누유되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요목

유라조생 4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 3,4년생, 남진해 3,4년생
부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에월을 상귀리 716번지 870평

성전온주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2년생
감평(레드향) 1,2년생
병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3690-2453, 010-5676-8820

감골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리온(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번이),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병자묘목(1000본 이상)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중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골(묘) 분양

중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리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